대림 제1주일(2019년 12월 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시기가 왔습니다. 대림시기 동안 사제는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고요’와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는 오늘로 2020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해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벌써 2020년 입니다. 늘 느끼지만 세월 정말 빠르죠. 세월이 빠르다 못해 그냥 날아 갑니다. ‘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빠른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고, 인생도 가고, 세상도 갑니다. 저도 여기서 청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세상을 살지만, 가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져본 듯하다”는 말 아시죠?

코끼리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 장님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무처럼 길쭉하고 반질반질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동앗줄처럼 생겼다” 혹은 “나무 뿌리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큰 담요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님끼리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싸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져본 듯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잘 모르면서, 내가 맞다고 우기고 큰 소리 치면서 살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주 만큼 큰 하느님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입구로만 보이는 하늘과, 우물 안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신앙을 갖게 된 후 부터는 제가 바라본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례 받기 전과 후의 제 생활을 비교해 보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고,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을때는 그저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았고, 나만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봉사’나 ‘희생’ 이런 단어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었죠.

신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세례를 받고 성당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한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주말 봉사를 하러 다녔었는데, 하루에 노숙자들 한 10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새벽부터 가서, 1000명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일이 힘들고 고되기는 커녕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일 하면서 돈 벌라고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했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제가 주방 일을 그때 배웠어요. 몇 년 그 노숙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웬만한 식당 주방장 정도 실력이 됩니다.

그 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죠. 저는 등산, 낚시,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는 늘 야외로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스키를 타러 다녔었죠.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봉사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나서는,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도 다 반납하고, 그 좋아하는 낚시, 등산 다 그만두고, 여기 저기 찾아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게 인생 최대의 목표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내 고정관념과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살았었는데, 신앙을 알고 나서는 보다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벅차고, 보람있게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이고, ‘사랑의 제사’입니다.

제가 쌀을 한움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쌀은 제각기 한톨한톨씩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사람 한사람은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공동체 같죠? 각자 따로 따로. 내 맘대로. 너는 너, 나는 나. 낱개가 서로 별개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쌀 한톨한톨이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하나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낱개로 존재하던 이 쌀 한톨한톨이 다 부서져서 서로 하나로 섞여서 엉겨붙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로 되는 반죽 안에서, 하나의 빵 안에서, 쌀 한톨한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빵만이 존재합니다.

즉, 내 자신이 부서지고, 각자 존재하기를 포기하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야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본보기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미사 때 행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고집과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공동체, 하나의 빵이 되는 것이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희생.’

이것이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제가 포도주를 축성하기 직전에 포도주에 물을 약간 섞습니다. 미사 때 제대 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포도주는 맛이나 알콜 성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포도주에 물을 약간 타서 마셨다고 해요. 예수님도 분명 이 전통대로, 최후의 만찬 때, 마시려는 포도주에 물을 약간 타셨습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봉헌하는 미사 때도 포도주에 물을 약간 탑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은, 우리들의 땀과 노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우리의 희생과 땀과 노고가 한 방울 보태져야만, 이것이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면서, 이것이 진정 그 분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우리의 희생과 땀이 보태져야,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결합해서, 완전한 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미사에 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계실지 모르지만, 이 미사는 그냥 오면 오고, 귀찮고 다른 일 생기면 안 와도 되는 그런 미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성사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도 희생과 노력을 바치는 봉헌의 성사이고, 그리고, 이 성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이 미사에 참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은총의 시간이 이 미사입니다.

세월이 무지 빠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보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릴텐데,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살다 보면, 인생 허무하고 불쌍해 집니다.

이 대림 시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 년중 가장 감동적인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기입니다. 바쁜 일들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잠시 멈추시고 내 인생과 신앙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 화해와 구원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인생 이야기이고 내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별 의미없이 세월 보내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껴보는 은총 가득한 인생 사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다 보면, 기쁨도 행복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깨어 나십시오. 우리에게 내려질 은총과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